

# 반 디자인 - 세계화 시대의 지역적 스타일의 의미 연구

## Anti- Design - A study on Local Sty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조현신

동서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Key words : Locality, Globalization, Anti- Design, Local Style

Jo, Hyun Shin,

Graduate School of Design, Dongseo University

### I. 문제제기

현재 디자인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의사 현실의 완벽한 성취, 기호와 스타일을 통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가 100여 년 전 종교와 근대화 이데올로기로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듯이, 현재 신자유주의는 문화의 현현체인 기호, 스타일과 일상의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각 지역을 타자화 하면서 동시에 동화시켜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세계화 양상이 지역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후, 대도시 번두리 부근의 특정 양식을 지닌 레스토랑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심화를 위해 이러한 현상을 범주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적 조망의 틀을 살펴본 뒤, 연구 대상의 레스토랑을 이미지 제시와 인터뷰, 분석의 순서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디자인을 조망한다는 점, 세계화 내에서의 지역적 디자인의 의미 고찰,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디자인을 연구하였다는 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 II. 본론

#### II.1. 일상사 연구

일상사 연구는 대중 소비 문화 연구에서 소외되어 조명 받지 못하는 곳, 하지만 일상이 재생산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연히 이는 평범한 실천을 지니고 있으나, 자신의 제도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현시할 이론적 영역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는 문화적 양태를 대상으로 한다.<sup>1)</sup> 하지만 이 연구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생산성과 문화적 실천의 의미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는 대안적 특성을 보인다.

일상성은 경험과 반복성의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역사적 사건들 혹은 대규모의 프로젝트와 충돌하면 그에 압도당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진실한 측면을 드러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일상성이 역사적 범주인 근대화 프로젝트, 세계화 현상 내에서 어떤 양태를 형성해 왔으며 현재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조명한다. 자연히 급속한 속도로 일상의 흔적을 지워야 했던 한국적 근대화 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 II.2. 기억과 경험의 표상화

모든 집단은 각 집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개개인의 유한성을 넘어 스스로를 영구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sup>2)</sup>

1) 장 마누엘 드 게이로 「일상생활의 사회학」, M. 마페즐리, H. 르 페브르외, 『일상생활의 사회학』 중, 한울 아카데미, 1998, p.102  
2)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5, p.129

경험과 기억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에 유기적 동일감을 구성한다. 하지만 "외적인 구체물이 없으면 경험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된다."<sup>3)</sup> 인간은 경험의 패턴을 재 조직화하면서, 자신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활동 중에 의식은 약동과 발랄성을 획득하면서 재생산의 힘을 얻는다.

근대국가가 탄생하면서 민족의 기억과 경험을 대규모로 복원하려는 작업은 기념물의 보존, 박물관 건립의 작업으로 총체화된다.<sup>4)</sup>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오히려 공간의 맥락적 특성을 말살하고, 실제적 잔여물을 소거하는 작업과 연결되면서 일상사의 두터운 혼란성, 불투명성, 잔존물, 잉여를 부정하는 균질화된 기억 만을 양산할 뿐이다. 정부나 대기업에 의한 전통 이미지의 복원작업, 월드컵 축구장에 도입된 전통적 이미지 역시 기억의 박제화적인 복원, 과거의 신비화라는 한계를 보여주며 상상적인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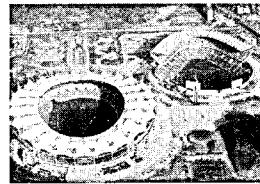


그림1. 삼암동 월드컵 경기장 방편연의 모습을 형상화



그림2. 경복궁 내에 복원된 근대 공간 맥락 상실의 대표적 예이다.

#### II.3 세계화와 지역성

일제 식민 치하, 고향을 상실한 기층 민중은 억압에 의한 이산(diaspora)과 변종(hybrid)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소설 껌뻌탄 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식민지 중국의 지배 세력권과 동화시켜나가는 양태로 그려지고 있다.<sup>5)</sup> 이 두 모습은 강압적 식민치하에서 벌어지는 대응 방식의 계층적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는 이러한 변종과 이산, 동화가 자발적인 습득과 향유의 과정으로, 지구 방위적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지역적 시간 감각을 상실케 하는 세계적 시간의 광범위한 유포라는 특성을 보이며, 정보와 영상을 일시적으로 압축해 세계의 실제 공간을 압축시키는 현상을 낳는다. 즉 "사물이나 장소의 입체감이 아니라 4차원(시간)이 3차원을 대신하는 사건의 입체감으로 현현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제 존재는 기하학적 가치를 상실하고 명백한 원격존재가 사건의 본질을 압도하는 시청각의 입체감에 굴복하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현상

3)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p.97  
4) 베네딕트 앤더슨, 「센서스, 지도, 박물관」, 『상상의 공동체』 중, 나남출판, 2003, 참조  
5) 현진건, 「고향」, 전광용, 『껌뻌탄 리』, 채만식, 『치숙』 참조

을 아라파두이는 미디어 스케이프에 의한 개인의 직접적 경험의 소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7)</sup> 즉 탈물질화된 이미지에 의해 타인의 삶을 환상하며, 집단 상상력의 발동, 욕망의 대리적 실현만이 일상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계화는 동시에 지역화라고 하는 역설이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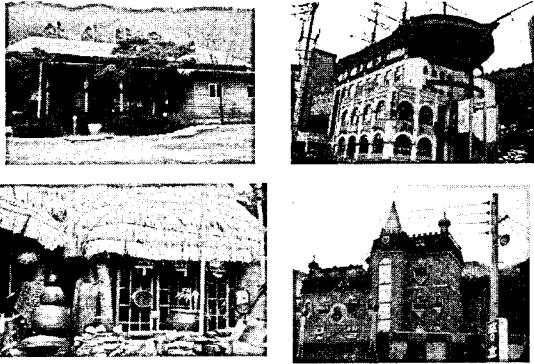


사진 3,4,5,6 장층의 레스토랑 전경  
이산과 변종, 혼합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의 분열, 지역적 시간의 상실을 표상하고 있다.

### III. 지역성연구 실례

세계화, 정보화의 현실에서 지역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감각과 물성의 회복, 현실적 구체성의 복귀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는 또한 여기라는 공간의 사라짐, 구체적 경험의 세계를 구성하는 거리와 기한을 전적으로 오염시키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위의 사진처럼 시각적 분열증을 보이는 현상을 데이비드 하비가 지적한 대로 후기 자본의 유연적 축적 전략인 시공간의 압축화 현상으로만 본다면,<sup>8)</sup> 이곳은 후기 자본의 세계적 이동의 숙주로서만 위치지어질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곳을 생성한 하위 주체들의 실천적, 행위적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규명하고 있다.<sup>9)</sup>

#### III.1. 백운호수 지역

● 지역적 특성 : 백운호수 부근은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위성도시인 의왕시가 지역적 안정성을 획득하면서 인근 주민의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80년 대 당시 까지만 해도 이 부근에는 판자와 슬레이트로 지어진 횡집과 닭백숙 집들이 산재한 양태를 띠고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식소비문화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음식점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현재 이곳은 서구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음식점,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이질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와 뒤섞인 혼재의 양식, 슬레이트와 유리만으로 가장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춘

6) 폴 비릴리오, 『정보과학의 폭탄』, 울력, 2002, p.122

7)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풀린 현대성』, 현문서가, 2004, 참조

8)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7 참조

9) 하위주체 : 본 연구는 대도시 중심의 문화를 상부로 설정, 변두리 지역을 하부주체라고 설정하였다.



사진 7,8 백운호수 부근의 파리따곰 식당

이곳은 주인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한 공간으로 자생적 디자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세 가지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도시가 변화와 속도의 체제에 선도적으로 흡수되기를 원하는 반면 이곳은 스스로 변화에서 물러난 듯한 이질적인 장소들이 혼재해 있는 곳이다. 이런 면에서 이곳은 변화와 속도를 거부하는 반 디자인의 공간,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디자인했다는 면에서 자생적 디자인 공간으로 명명 지을 수 있다.

● 주인, 손님 : 이곳 음식점의 주인과 손님들의 성장배경, 계층의식, 지향하는 문화적 양태, 공간에서 얻고자 하는 것 등을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다.

● 스타일 분석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음식점들은 시각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라고 불리는 것들과 이질적인 요소들의 혼재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 대상을 형태, 물성, 색채, 공간구성의 특성으로 살펴본 후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지니는 문화적 기능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 IV. 잠정적 결론 및 향후 연구

대 도시 부근의 특정 공간에 들어서면 모든 건물이 식민 사회의 특성이 부적절한 모방의 표상으로 압혀져 상처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그것은 호미 바바가 말했듯이 비웃음과 얼버무림, 역설적 혼란을 파생한다.<sup>10)</sup> 본 논문은 이러한 관찰자의 경험이 과연 생산자, 행위자의 실천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가에 대한 의문, 가속화되는 세계화에서 이런 양식이 실천적 대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이다. 만약 이러한 공간이 통일성을 전제로 하는 정체성 표지에 실패한 장소라면 이는 생산자들 자신의 경험을 승화시켜 보편적 공적 미감의 창조를 달성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향후 사례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내희, 『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003
-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03
-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3
- H. 르페브르, 『일상생활의 사회학』 중, 한울 아카데미, 1998
-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풀린 현대성』, 현문서가, 2004
- 지그문트 바우만, 『지구화, 아누스의 두 얼굴』, 한길사, 2004
- Santner, Eric, 『Stranded Objects』, Cornell, 1990
- Lpwenithal, David,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1999
- 10)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소명, 2002 참조